

# 한국의 정당 정치와 인터넷: 인터넷 정당의 가능성과 노사모의 경험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 1. 서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부각된 현상은 인터넷의 위력과 관련된 것이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는 믿음이 경험적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성공 신화’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더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정치관계법에서 지구당의 폐지와 각종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정당 정치에서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민주노동당과 과거 개혁당의 인터넷 활동이 다소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다수 주요 정당들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정당 정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역 인터넷망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가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정당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후 노사모라 칭함)의 존재는 눈길을 끈다.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정치인 지지자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외면해 왔던 우리의 정치 문화와 관련하여 볼 때 매우 눈길을 끄는 집단이다. 노사모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결성되고 활동하는 정치 집단으로 2000년 5월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 오고 있고 또 참여가 크게 확대되어 온 성공적인 정치 참여의 예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노사모의 조직과 활동상의 특성을 정당 정치의 일반 이론이나 집단 이론과의 연계 하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기본적 의문점은 첫째, 한국 사회에서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사모와 같은 집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며, 둘째,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동원의 기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 정당의 지구당 조직이 자금 투입 없이는 사실상 제대로 기능해 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문점을 이론적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첫 번째 의문점은, 집단 형성 이론의 관점에서 노사모의 집단 형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것은 서구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유인(incentive)처럼 노사모라는 집단이 제공할 수 있는, 혹은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상의 집단 형성과 오프라인상의 집단 형성과 논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활발하게 나타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결성되고 발전해 가는 현상도 함께 설명해 보려는 목적도 갖는다.

이와 같은 노사모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노사모 현상’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중적 정당 구조를 갖고 있으나 자발적 참여자가 없다는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노사모의 조직과 활동의 특성

노사모는 과거에 존재했던 정치 집단과 비교해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는, 온라인에 기반을 둔 정치 집단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인의 팬클럽이라는 특성이다. 그동안 한국 정당 정치와 관련하여 결성되었던 집단들은 모두 오프라인 상에서 기획되고 결성된 것이다. 그러나 노사모는 처음 모임의 결성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되었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노무현이 낙선하고 난 이후 그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하여 그의 낙선에 대한 울분을 토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4월 15일 노무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늪은여우’라는 네티즌이 ‘노무현 팬클럽’ 결성을 제안하고 회원 모집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노사모의 시초이다 (노사모 2002: 11). 정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단체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조직이나 정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노사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모임도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활동과 조직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치단체의 활동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노사모가 정당이 아니라 인기 있는 정치인 개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스타’의 팬클럽 집단이라는 점이다. 김용호 (2004: 14)는 노사모의 존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치인과 시민사회간의 연출맺기(networking)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노사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해 온 지연, 혈연, 학연에 기초한 연고주의 집단 대신 자발적인 결사체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모가 팬클럽이라는 사실은 노사모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 결성의 논리가 이념이나 교의와 같은 객관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호감, 애정과 같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태도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노무현 의원님, 힘 내세요. 스스로 바보이기를 자청한 의원님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싸움은 승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만 지고도 이긴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신 의원님에겐 그 이상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노혜경 외 2002:10)

김용호 (2004: 12-14)는 노사모가 과거의 연고주의적 가치관에 익숙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회원들은 정치를 권력투쟁이라기 보다 일종의 놀이(play)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놀이로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야말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대중매체의 스타들처럼 정치인 노무현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하겠다.

노사모는 2000년 4월 7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했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02년 5월 20일 기준으로 회원 수가 45,486 명으로 늘었고,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 16일

73,446명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 4월 13일 현재 109,062명의 회원이 존재한다. 2002년 5월에 비해 2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회원 규모에 비해서 회비 납부자의 수는 그리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모의 운영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다른 정치적 조직과는 그 특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노사모는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는 ‘십시일반 자동이체’나 ‘낮은올타리 회비납부’ 등이 있다.

노사모의 조직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모임은 전국에 17개 광역지역 노사모가 있고 그 하부에 기초단위 지역 노사모가 있다<sup>2)</sup>

노사모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이다. 노사모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치적 모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마치 일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마련한 동호회와 마찬가지로의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존재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게시판으로 출발하였지만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동호회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회원 20명이 건의하면 운영자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축구,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뿐만 아니라 종교별, 취미별 모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의 종류로는 컴퓨터/인터넷, 레저/스포츠, 친목/또래, 문화/예술, 정치/경제, 취미/오락, 사회/봉사, 교육/과학, 기타<sup>3)</sup> 등이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또 다시 수많은 개별적인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노사모 회원들은 마치 일반 포털 사이트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시로 노사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다른 회원들과 정치적 토론뿐만 아니라 취미나 여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실제로 게시판이나 모임별 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여가 활동 모임에 대한 소개로 가득하다.

실제로 노사모는 온라인상의 집단이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모임도 자주 갖고 있다. 노사모의 최고 의결기구인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이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총회, 전진대회라든지 자전거달리기나 등산 등과 같은 모임을 활발하게 열고 있고 참여자의 수도 적지 않은 편이다. 동호회, 지역모임 및 특별행사 등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놀이와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집단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새내기방은 신입회원들이 노사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으로 노사모의 연역과 활동 등 노사모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사모 100배 즐기기’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과 노사모 웹진을 통한 노사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노사모 웹진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해석, 의견 개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1) 2004년 4월 13일 현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회원 수는 7,654명이라고 한다.

<http://www.nosamo.org/home/index.asp>

(검색일 2004. 4. 13)

2) <http://www.nosamo.org/static/index.asp>

(검색일 2004. 4. 6.)

대구역은 제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서울불꽃, 서울동년, 서울북부, 서울독립문, 서울동부, 서울남부/광명, 부천, 인천/김포, 경기북부, 경기남부, 안산/시흥, 경기동부/성남, 들꽃울산, 경기중부, 고양/파주, 경남, 부산 등이다.

3) <http://www.nosamo.org/forum/index.asp>

(검색일 2004. 4. 6.)

공간으로 노사모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 공간이다.

그런데 충원, 조직, 교육, 토론, 정책결정, 인선, 커뮤니케이션, 모금 등이 정당을 비롯한 각종 조직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할 때 이러한 노사모는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이와 같은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사모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정치 활동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정치 활동이 기존의 정당 조직, 특히 지구당 조직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노사모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단체였다. 노사모를 통해 국민경선에 참여한 인원이 40만 명으로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한 190여만 명의 21 퍼센트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노사모 2002: 21).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사모는 단순한 팬클럽을 넘는 정치 단체, 특히 선거운동 조직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건터와 다이아몬드 (Gunther and Diamond 2001: 9-29)는 정당을 분류하면서 파네비안코 (Panbianco 1988)가 말하는 선거-전문가형 (electoral-professional) 정당의 개념으로부터 세 가지 형태의 선거형 정당 (electoralist parties)을 구분하고 있다. 선거형 정당의 세 가지는 정강(政綱)형 정당 (programmatic parties), 포괄 정당 (catch-all parties), 그리고 개인형 정당 (personalistic party) 등인데, 노사모를 이 가운데 하나로 분류해 본다면 개인형 정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개인형 정당은 정당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권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선거 운동 초점을 맞춘 일시적이고 취약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노사모라는 조직이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모가 노무현이 조직하고 이끌어 온 단체가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지지자 혹은 추종자들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개인형 정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집된 집단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사모를 단순한 선거머신 (electoral machine)으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김용호(2004: 14)의 지적대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의 선거머신처럼 기능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일시적이라고 할 만큼 평상시에도 활발한 활동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 1인을 위한 일시적인 선거머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모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결성된 팬클럽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정당이거나 정당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보다는 단순한 정치인의 팬클럽을 넘어서 정치적 시각이나 태도에 있어서 동질성이 높고 정치 참여의 의사가 적극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정도로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 3. 인터넷상의 정치 집단의 형성

노사모가 주는 학문적인 흥미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자발적으로 형성된 정치 집단이라는 점이다. 어떤 이유로 노사모와 같은 집단은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유지, 발전되어왔을까. 왜 노사모 회원들은 노사모에 참여할까.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곳에 집단은 형성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Bentley 1908). 그러나 노사모가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참여하는 회원들의 배경이나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같

은 일종의 ‘공익적 가치’를 제외한다면 전 회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모가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단계는 정치인의 팬클럽처럼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사 집단과 특별히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정연정(2002: 76-78)은 인터넷이 개인 수준에서는 집단 참여의 비용을 낮추었고 집단 수준에서는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조직화의 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인터넷 공간상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소통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것이 인터넷상의 활발한 집단 참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사모가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드문 정치인의 팬클럽이며 참여의 규모가 크게 성장해 왔고 활동 양상 역시 한국 정치에서는 드물게도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치 단체가 대체로 동원을 위한, 혹은 동원에 의한 하향식 조직인데 비해서 노사모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편 참여의 비용이 낮다는 것은 분명히 집단 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조건이 된다. 서구 정당들의 경우에도 유권자들 사이에 만연한 정당혐오증이나 정치무관심에 따른 정당정치에 약화를 만회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정병기 2003: 207). 그러나 참여의 비용이 낮다는 특성은 동시에 인터넷상의 참여는 집단에서 이탈하는 비용 역시 그만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손쉬운 이합집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상에서 결성된 집단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쉽게 생겨났다가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이 (2001)의 지적대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참여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항의(voice)를 선택하기보다 탈퇴(exit)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모는 회원 수가 ‘꾸준히 늘어났고’ 또 비교적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터넷 공간상의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상업적 동기로 운영자가 ‘카페’와 같은 집단의 형성과 유지를 권장하고 관리하는 일반 포털 사이트와는 달리 노사모는 참여자의 자발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유지되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속성과 성장의 모습은 눈길을 끈다.

노사모 조직의 동인은 기본적으로 감성적 요인에 의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선한 노무현에 대한 동정과 공감이 노사모 결성의 근본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비단 노사모뿐만 아니라 일반 팬클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된다. 즉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인터넷상의 수많은 팬클럽과 안티팬클럽의 형성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는 이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사모가 팬클럽적 속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팬클럽의 형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들이 팬덤(fandom)을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생성시켜 나가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김현정, 원용진 2002: 257). 실제로도 노사모는 회원들간 공유되는 독특한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은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데 유독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팬클럽만이, 강한 결집력과 탄탄한 조직망을 갖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은 다른 정치인들의 팬클럽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노사모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앞서 노사모를

정당 조직과 유사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정치적 집단에서의 참여라는 점에서 서구에서 정당에 참여하는 동인과 관련하여 노사모의 참여 동기를 논의하는 일은 유익할 것이다. 정당에 참여하는 동인에 대해서 웨어 (Ware 1996: 68-78)는 물질적 동기 (material incentive), 연대적 동기 (solidary incentive), 목적적 동기 (purposive incentive) 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물질적 동기는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사업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 서구의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주와 소작농, 혹은 후견인-피후견인간의 정치적 거래와 같은 것이 이것의 예가 된다.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 주는 우리나라의 선거 운동원도 물질적 유인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적 동기는 물질적 동기에 비해 혜택이 구체적이지 않다. 개인 스스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집단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담화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즐거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연대적 유인은 과거 정당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여가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없었던 상황에서 서구의 정당들은 값싼 선술집이나 축구 팀, 여름 캠프 등 사교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연대적 유인을 통해 참여를 제고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교육을 시키고자 했다. 즉 놀이와 재미를 통해 일단 참여를 이끌고 이를 정치적 지지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즉 정당들은 '맥주와 게임(beer and skittles)' 혹은 '차와 과자(tea and buns)' (Ware 1996: 70)를 통해 사람을 끌어 모으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교화시키는 전략을 행했던 것이었다.

목적적 유인은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강령 등에 의해 정당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정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 목표나 가치에 대한 공감에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현대 서구의 정당 정치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며, 연대적 유인을 통한 충원이 정치교육이나 교화를 통한 방식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목적적 유인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유인 가운데 노사모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우선 물질적 유인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노사모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사모의 결성이 지역주의에 도전했던 노무현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노무현의 정치 이념에 대한 지지를 표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목적적 유인에 의한 참여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음의 글은 노사모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장나라 팬클럽에서 장나라의 존재는 매개일 뿐만 아니라 전체이며 동시에 목적인 반면, 노사모에서 노무현이란 존재는 전체이긴 했지만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조직에서 노무현이란 인물은 - 붉은 악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노사모가 노무현이라는 구체적 개인을 매개로 모였고 힘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 원동력은 그 개인 자체에만 내재해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정치의 '표상'으로서의 노무현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무현이란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되, 그를 사랑하는 것이 조직의 최종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다 (천선영 2002: 261. 강조는 원문의 것임).

즉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결집과 참여를 촉발시킨 주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참여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가치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서구에서 사회주의 정당이나 기독교 정당들이 자기 정당의 참여자들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강령이나 객관적인 가치를 정의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연 노사모는 목적적 유인에 의한 참여라고 볼 수 있을까? 정당의 강령에 해당하는 [노사모의 약속]은 2002년 6월 6일 제 2 차 전자투표를 통해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노무현과 함께 우리나라의 왜곡된 지역감정의 극복에 동참한다.
2.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노사모 회원들과 함께 결정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3. 노사모의 약속과 노사모의 활동이 기록된 관례가 회칙을 대신하며, 이 약속과 관례는 노사모의 전자투표만으로 바꿀 수 있다.(노사모 2002: 52)

여기서 ‘왜곡된 지역감정의 극복’이나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 정당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의 정치적 지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역주의를 타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현상타파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이후에 추구해야 할 ‘참된 민주주의’의 실상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공유되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사모의 약속은 2002년 5월 14일 전자투표를 통해 [노사모의 약속과 규약]으로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목적)

노사모는 노무현과 함께 국민통합과 민주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둘 (정신)

노사모는 참여 민주주의 정신과 회원의 자발성을 기초로 활동하며, 인터넷 모임으로서 전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 (운영원리)

노사모는 회원의 인터넷 투표로 결정된 규약과 규약에서 위임한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된다<sup>4)</sup>.

지역주의라는 표현 대신 ‘국민통합과 민주실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것들 역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사모가 목적적 유인을 참여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원택(2003: 328-331)은 노무현의 지지자들 가운데 소위 386세대로 불리는 30대-40대층이 다수인 점에 주목하였고, 이들이 노무현을 지지하게 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 저항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

4) <http://www.nosamo.org/masters/index.asp?masflag>

2004. 4. 13)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단순히 지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혁과 정치적 진보라는 점에서 '유사한 코드' (강원택 2003: 329)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노사모의 결집은 목적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사모 회원의 구성을 보면 노사모를 가수나 배우와 같은 '스타'들의 팬클럽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특성도 발견된다. 우선 노사모 회원의 구성을 보면 20대보다는 30대, 40대, 학력으로는 고학력,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회원들이 많다 (강원택 2003: 279-282). 이는 노사모의 구성이 단순한 감정적 호오를 넘어 이념적인 동질성을 갖는 집단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노사모는 따라서 단순한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목적적 유인을 갖는 이들의 정치 단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러한 목적적 유인이 정당이라고 하는 제도적 틀이 아니라 노무현이라고 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규합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 정당 정치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우리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고 시민사회 내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개방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변혁에 대한 요구는 정당보다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표현되었고 특히 지역주의에 정치적으로 의존해 있던 기존 정당들은 지역주의 타파와 같은 정치적 변혁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모할 정도로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노무현은 정치적 변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비취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기존 정당을 통해 표현되거나 성취될 수 없는 정당 정치의 한계가 노사모와 같은 정치 집단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현실 정당 정치의 결여된 측면을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정치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당 조직이 외형적으로는 대중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그동안 동원을 위한 하향식 조직으로 운영되었을 뿐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자극할 만한 유인은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특정 정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정당 조직이 아니라 팬클럽의 형태라는 조직적 특성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이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대통령제와 관련하여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통치방식이나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정당 정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유동성이 큰 곳에서는 정당보다 대통령이 정치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적 유인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나라처럼 정당의 유동성이 큰 곳에서는 정당보다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인물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사모의 조직은 정당이라는 조직보다 후보자 개인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미국 정치와 유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선거는 정당보다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행해지며 정치인들 역시 정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지역구의 이해관계나 투표자,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더욱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다. 대통령 후보 역시 정당 소속이라는 입장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중시된다 (Katz and Kolodny 1994: 26-7). 노사모 역시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결집이고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그 활동과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



치 참여의 형태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 이들이 온라인이라는 시공간상의 제약을 넘어서는 기술적 진보로 인해 서로 소통하게 된 결과 생겨나게 된 대표적 정치적 집단이 노사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사모에 참여한 이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한국 정치 현실의 개혁이나 변화라고 본다면, 이들의 참여는 목적적 유인에 크게 영향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사모의 참여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특성은 연대적 유인과 관련된 것이다. 노사모 홈페이지와 회원들의 참여 형태를 분석해 보면 노사모에 대한 참여는 연대적 유인에 의한 형태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노사모에는 많은 수의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고 지역별 모임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사모가 노무현의 지지자들의 모임이라는 정치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노사모 참여자들에게 ‘놀이와 재미’라는 효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연대적 유인이 노사모 회원들의 참여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과거에 정당이 연대적 유인을 활용했던 한 이유는 정당 활동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진입장벽이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노사모의 경우에도,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와 같은 연대적 유인을 통해 신규 회원의 충원이나 기존 회원들의 경우 노사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마치 과거 서구의 정당들이 연대적 유인에 의해 당원들을 충원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치 교육 등 정치 사회화를 추구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노사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정인 등(2002: 110)은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 활동이 네티즌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곧 인터넷 동호회가 참여자들의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유사하게 인터넷상의 집단 형성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영 2002; 송경재 2004). 따라서 노사모에서 행하는 동호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집단 활동을 통한 교류와 재미라고 하는 연대적 유인의 속성을 갖는 것이지만 동시에 참여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또 이들간의 상호신뢰를 높여주는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노사모의 경우에는 회원의 참여가 선행되고 동호회 활동이 뒤따른 것이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고유하는 정치적 가치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노사모 이외의 다른 팬클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자생적이고 비조직적인 형태로 산재해 있었다. 1993년 기획사가 이러한 팬클럽을 한데 묶어 공식 팬클럽을 결성했으나 팬클럽 내에서 생성된 관계망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즉 팬덤의 활동은 스타와의 관계 지속이라는 차원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체성이 공유되는 준거 커뮤니티로서 팬덤간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김현정, 원용진 2002: 266). 즉 노사모가 일종의 팬클럽이라고 해도 노무현이라는 ‘스타’와 팬들과의 관계만이 노사모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노사모 회원들간의 네트워킹과 상호 교류를 통한 정치적 정체감의 확인과 강화가 노사모의 유지와 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모를 통한 상호소통과 교류,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놀이와 재미’라고 하는 연대적 유인은 회원간 정체성의 강화뿐만 아니라 참여 자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정당의 연대적 유인과 노사모의 사례는 올슨(Olson 1965: 50)이 이야기하는 ‘중간 집단 (intermediate groups)’을 떠올리게 한다. 올슨의 중간집단은 어떤 개별 구성원도 혼자서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할 정도로 집단 형성으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집단에 참여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서 내가 빠지더라도 공공재가 공급될 수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올슨은 이런 중간집단이 공공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집단 조정 (group coordination)이나 조직(organization)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연대적 유인, 즉 교류로부터 얻게 되는 재미, 즐거움과 정보 획득이라는 공공재는 조직화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노사모 역시 정치적 일체감뿐만 아니라 회원간 소통, 교류를 통한 연대적 유인을 공급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연정(2002: 78-80)은 정보 획득과 같은 물질적 유인과 연대감 강화라는 사회적 유인이 올슨이 이야기하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것은 인터넷 집단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혜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 획득과 같은 물질적 유인과 연대감 강화라는 사회적 유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의 집단 형성을 통해 얻게 되는 ‘놀이와 재미’와 같은 효용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은 개인적으로는 생성해 낼 수 없는 일종의 공공재인 셈이다. 노사모에는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존재하지만 지역별, 동호회별로 나뉘면 그 규모는 연대적 유인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올슨이 이야기하는 중간 집단 정도로 축소된다. 온라인 내의 동호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동호회나 지역별 ‘번개’와 같은 소집단 중심의 모임을 통해 연대적 유인을 생성해 내고 있는 셈이다. 송경재(2004: 199)는 사이버 공동체는 어느 수준이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이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이 강화된다고 지적하였다. 노사모는 대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모임이 잘 결합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오프라인상의 모임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회원간 결속과 정체감의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당 활동에 대한 연대적 유인의 활용은 서구에서는 산업 혁명 이후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사회적 연계와 유대가 자연스럽게 중시되었던 산업 사회의 특성이며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의 수단이 마땅치 않던 시절의 현상이었다. 따라서 웨어 (Ware 1996: 76)는 서구 정당의 연대적 유인의 효과는 서유럽에서 경제적 풍요가 이뤄졌던 1950년대가 되면 급속히 약화되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사모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 사회는 이미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고 후기산업사회적 특성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레크리에이션 역시 자동차나 TV, 영화관의 대중적 보급뿐만 아니라 널리 구축된 광역 인터넷망으로 인해 개인들이 스스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대적 유인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측면도 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발전과 대중문화사회의 도래 등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노사모의 결성은 인터넷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산재해 있는 유사한 취향이나 사고를 갖는 이들을 상호 연계해 주고 소통하게 해 주는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넘는 인터넷상의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 곳곳에 산재해 있던 정치적으로 유사한 관점을 갖는 이들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정치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노사모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노사모의 결집은 기본적으로 목적적 유인으로부터 추동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사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해 준다는 점이 노사모 참여의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노사모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노무현이라는 ‘스타’가 계속해서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비슷한 성향을 갖는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사모 활동은 참여와 놀이가 결합된 특성의 결과인 셈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주는 손쉬운 참여와 시공간의 제약 없는 소통 공간이라는 특성과 공감, 동질감, 정체성이라고 하는 팬클럽의 특성,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원간 ‘관계’ 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어울림, 놀이, 재미라고 하는 연대적 유인의 특성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사모의 일상적인 활동이 언제나 정치적인 이슈나 사건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평시에는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처럼 일종의 놀이 공간처럼 참여하고, 또 틈틈이 오프라인에서의 소모임을 통해 취미나 여가활동을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것도 노사모라는 집단의 성공적 운영을 설명해 주는 요인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활발한 모임의 전개는 사실 매우 흥미롭다. 단지 특정 정치인이 좋다는 이유로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정을 이끄는 30대, 40대 직장인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오프라인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 현실상 드문 일임에 틀림없다. 연대적 유인이라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온라인 공간상에서의 활발한 토론이 회원들의 결속력과 일체감을 강화시켜 주고 있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온라인 참여보다 참여의 비용이 훨씬 큰 오프라인상의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 집단이라고 해도 목적적 유인만으로 집단이 유지, 발전되는 것은 아니며 연대적 유인을 통한 재미와 놀이라는 요인도 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은 인터넷상의 집단인 경우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노사모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정치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노사모는 한 정치인의 팬클럽으로 형성되어 현재는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한국 정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에 기초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규모 회원이 참여하는 노사모는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사모의 성공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 노사모가 손쉽게 원거리의 상대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참여의 비용이 오프라인에 비해 적게 든다고 하는 점이 인터넷 공간상의 집단인 노사모의 결집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저절로 참여를 증진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기보다는 단지 국민과 정치지도자 사이의 정보와 의사교환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치 참여 수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 (Arterton 1987: 14-15; 김용철, 윤성이 2000: 131)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과 노사모를 때

어놓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노사모의 활발한 활동을 설명하는데 인터넷은 오히려 보조적이고 이차적인 수단인 듯이 보인다.

여기서의 관심은 어떻게 정치인의 팬클럽으로 출발한 노사모라는 조직이 소규모의 팬클럽에서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회원간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의 발견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참여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회원들이 최소한의 목적적 유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정치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갖는 이들이 인터넷이라는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상에서 서로 만나서 동질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노사모 결성의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요인은 그렇게 결집된 인터넷상의 집단이 여가활동, 취미를 나눌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단순한 결집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놀이와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대적 유인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모에 참여하는 심리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의 정치사회화 그리고 집단 활동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자극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 정당 활동과 같은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심리적 문턱도 높고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정치 집단으로서 노사모의 성공적 사례는 정치가 일상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유인 못지않게 연대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강정인, 이현우, 이원태. 2002. “정보화와 한국인의 의식변화: 네티즌의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4호, pp.99-132.
- 김용철, 윤성이. 2000.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pp.129-147.
- 김용호. 2004. “네티즌 포폴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인가: 「노사모」 사례 연구”. IT 정치연구회 월례회 발표 논문. (2004. 3. 13.)
- 김현정, 원용진. 2002. “팬덤 진화 그리고 그 정치성: 서태지 팬클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집 2호, pp. 253-278.
- 노사모. 2002.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길잡이』.
- 노혜경 외. 2002. 『유쾌한 정치 반란, 노사모』. 개마고원.
- 배영. 2002.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I사 포럼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경재. 2004. 『한국의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지연, 김민전. 2003. “한국 정당의 수입구조”. 안청시, 백창제 편.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1-46.
- 윤성이. 2001. “정보사회의 명암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공동

학술회의 발표문.

- 정병기. 2003.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한국정치연구』 12집 2호, pp. 193-211.
- 정연정. 2002. “인터넷과 집단행동의 논리: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pp. 69-86.
- 천선영. 2002. “노사모에 대한 사회학적 단상: 예고된 딜레마”. 노혜경 외. 『유쾌한 정치 반란, 노사모』, pp.257-273.

- Arterton, Christopher. 1987. *Teledemocracy: Can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Newbury Park, CA: Sage.
- Bentley, Arthur. 1908. *The Process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ther, Richard and Larry Diamond. 2001. "Types and Functions of Parties", in Gunther and Diamond eds.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3-39.
- Katz, Richard and Robin Kolodny. 1994. "Party Organization as a Empty Vessel: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in Katz and Mair eds.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pp.23-50.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ne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e, Alan.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